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출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는 일반 어휘처럼 문법 형태소에서도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이거나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전자로는 현대 국어에서 명사 ‘놀이’에 쓰인 명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 ‘놀이’에 쓰인 부사 파생 접사 ‘-이’를 예로 들 수 있다. 명사 파생 접사 ‘-이’는 여러 의미로 쓰인다. 예컨대 ‘놀이’에서는 ‘...하는 행위’의 의미를, ‘구두담이’에서는 ‘...하는 사람’의 의미를, ‘연필깎이’에서는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낸다. 후자로는 현대 국어의 명사 파생 접사 ‘-이’와 ‘-음’을 예로 들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도 명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 파생 접사 ‘-이’가 존재하였다. 가령, 현대 국어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기리(길-+ -이)’의 ‘-이’는 형용사 어간에 붙어 명사도 만들고 부사도 만들었다. 또한 ‘-이’는 ‘사리(살-+ -이)’처럼 동사 어간에 붙어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하는 사람’,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중세 국어에서 명사 파생 접사 ‘-이’처럼 용언 어간에 붙는 명사 파생 접사 ‘-의’도 쓰였는데, 이 ‘-의’는 ‘-이’와 달리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 또한 접사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이’로 쓰였는데, 접사 ‘-이’는 중세 국어에서 ‘ㅣ’

지문형이므로 물론 지문을 읽고 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랏말쌈 2022버전(198-199p.)을 통해 이미 ‘의’가 관형격조사로도, 부사격 조사로도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안 학생은 고민하지 않고 답을 체크하고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35번과 36번을 모두 빠르게 풀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었네요.
(36번의 정답에 대한 적중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사격 조사로 쓰이기도 했다. 관형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 체언 뒤에 쓰였고, 부사격 조사는 서술어와 호응하여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에서 쓰였다. 그런데 이들 ‘의’도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이’로 쓰였다.

- 〔 버피(범 + 의) 뼈나 [범의 뼈나]
- 〔 사르미(사람 + 의) 무레 [사람의 무리에]
- 〔 무퇴(물 + 의) 든니논 [물에 다니는]
- 〔 바미(밤 + 의) 나디 아니흔느니 [밤에 나가지 아니하니]

35.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책꽂이’에서 ‘-이’는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이다.
- ② 현대 국어 ‘놀이’에서의 ‘-이’는 중세 국어 ‘사리’에서의 ‘-이’와 달리 ‘...하는 사람’의 의미로 쓰인다.
- ③ 현대 국어 ‘길이’처럼 중세 국어 ‘기리’도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
- ④ 중세 국어에서 접사 ‘-의’가 붙어 파생된 단어는 두 가지 품사로 쓰였다.
- ⑤ 중세 국어에서 체언에 조사 ‘의’가 붙은 말은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였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王人 겨퇴 안젧다가 [왕의 곁에 앉아 있다기]
- ㉡ 曲江人 구빅에 ㄹ마니 든니노라
[곡강의 굽이에 가만히 다니노라]
- ㉢ 光明이 불기 비취여 [광명이 밝히 비치어]
- ㉣ 글지시에 위두흔고 [글짓기에 으뜸이고]
- ㉤ 쓰리 일후문 [딸의 이름은]

- ① ㉠에서 ‘겨퇴’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격 조사** 이군.
- ② ㉡에서 ‘구빅’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 파생 접사이군.
- ③ ㉢에서 ‘불기’의 ‘-이’는 모음 조화와 무관하게 결합한 부사 파생 접사이군.
- ④ ㉣에서 ‘글지시’의 ‘-이’는 모음 조화와 무관하게 결합한 명사 파생 접사이군.
- ⑤ ㉤에서 ‘쓰리’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관형격 조사** 이군.

㉠ 특이 처격
‘특이 처격’이라는 것은 형태는 ‘의/의’로 **관형격 조사와 같지만** 사실은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따라서 무정 체언 뒤에 ‘의, 의’가 결합하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왜냐하면 관형격 조사는 무정 체언 뒤에 ‘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예 새버리 나지(낮+의) 도드니 ㉠ 셋별이 낮에 돌으니 : 양성 모음 ‘ㅏ’ 뒤
- 예 처서미(처쉬+의) 혼 번 버리니 ㉡ 처음에 한 번 버리니 : 음성 모음 ‘ㅣ’ 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출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② 명사 파생 접미사 '-익/의'
- 현대 국어의 '길이, 높이' 등의 '-이'에 해당하는 접미사이다. '-익/의'는 **척도 형용사 뒤에 결합하여 명사를 만든다**는데,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와 형태가 같다.
- 예 기리(길-+-의) 높이(높-+-의) / 예 노릭(높-+-익) 높이(높-+-의) 키(크-+-의) 키
- 27. 중세 국어에서 명사 파생 접미사로 흔히 사용되는 것은 _____ 이었다.
- ☆ 28. 중세 국어에서는 형용사 뒤에 _____ 가 결합하여 **명사**를 만들 수 있었다.
- 29.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통사적/비통사적] 합성어가 생산적으로 만들어졌다.

36번의 정답은 2번인데, 이 역시 나랏말쌈 2022 버전(209p.)에서 강조된 바 있습니다. '-의'는 부사가 아니라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이죠. 또 나아가 나랏말쌈에서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와 형태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5번 선택지에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한줄 N제 28번에서는 형용사 뒤에 '-의'가 결합하여 명사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37번은 너무 쉬운 문제였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35.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책꽂이'에서 '-이'는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이다.
- ② 현대 국어 '놀이'에서의 '-이'는 중세 국어 '사리'에서의 '-이'와 달리 '...하는 사람'의 의미로 쓰인다.
- ③ 현대 국어 '길이'처럼 중세 국어 '기리'도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
- ④ 중세 국어에서 접사 '-익'가 붙어 파생된 단어는 두 가지 품사로 쓰였다.
- ⑤ 중세 국어에서 체언에 조사 '의'가 붙은 말은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였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王人 겨퇴 안젧다가 [왕의 곁에 앉아 있다기]
- ㉡ 曲江스 구벽에 2마니 든니노라 [곡강의 굽이에 가만히 다니노라]
- ㉢ 光明이 불기 비취여 [광명이 밝히 비치어]
- ㉣ 글지시에 위두호고 [글짓기에 으뜸이고]
- ㉤ 쓰리 일후른 [딸의 이름은]

- ① ㉠에서 '겨퇴'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격 조사 이군.
- ② ㉡에서 '구벽'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 파생 접사이군.
- ③ ㉢에서 '불기'의 '-이'는 모음 조화와 무관하게 결합한 부사 파생 접사이군.
- ④ ㉣에서 '글지시'의 '-이'는 모음 조화와 무관하게 결합한 명사 파생 접사이군.
- ⑤ ㉤에서 '쓰리'의 '이'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관형격 조사 이군.

3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난 상황)

민수: 영이야, ㉠ 우리 둘이 뭐 하고 놀까? 이 강아지랑 놀까?

영이: (민수 품에 안겨 있는 강아지를 가리키며) 아, 애?

민수: 응, 애가 전에 말했던 봄이야. 봄이 동생 숨이는 집에 있고.

영이: 봄이랑 뭐 하고 놀까? 우리 강아지 별이는 실뭉치를 좋아해서 ㉡ 우리 둘은 실뭉치를 자주 가지고 놀아. 너네 강아지들도 그래?

민수: 실뭉치는 ㉢ 둘 다 안 좋아해. 그런데 공은 좋아해서 ㉣ 우리 셋은 공을 갖고 자주 놀아. 그래서 공을 챙겨 오긴 했어.

영이: 그렇구나. 별이는 실뭉치를 좋아하니까, 다음에 내가 혼자 나오고 내가 별이랑 나오면 그때 ㉤ 우리 셋은 실뭉치를 갖고 놀면 되겠다.

민수: 그러자. 그럼 오늘 ㉤ 우리 셋은 공을 가지고 놀자.

- ①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 ②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 ③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 ④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 ⑤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38. 밑줄 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보기>의 문장과 같은 것은?

<보 기>
이곳의 지형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유리하다.**

- ① 그 광물이 원래는 귀금속에 속했다.
- ② 그는 바람이 불기에 옷깃을 여몄다.
- ③ 우리는 원두막을 하루 만에 지었다.
- ④ 나는 시간이 남았기에 그와 걸었다.
- ⑤ 나는 구호품을 수해 지역에 보냈다.

[40~43] 다음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한 신문 기사를 다루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 김 모 군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김 모 군이 돌아오 레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이 여하이 **커스미**가

그렇다고는 하여도 이 '필수적 부사어'라는 것은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의 예시들을 유형별로 익혀 두는 것이 가장 좋다.

38번은 필수적 부사어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필수적 부사어라는 것이 워낙 직관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헷갈리는데요, 따라서 나랏말싸미 2022(65p.)에서는 유형별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선택지 1번~5번 중에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는 1번 '속하다'와 5번 '보냈다' 뿐입니다. 그런데 '유리하다'와 '속하다'는 2자리 서술어, '보내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유형	필수적 부사어	예시
'되다'류	~으로	물이 얼음으로 [되다/변하다].
'만나다, 싸우다' 등 두 사람이 함께 행동하는 동사 ★	~와	영희가 철수와 [만나다/싸우다/달다/겨루다/다투다/결혼하다].
'같다, 다르다'류	~와	이것은 저것과 [같다/다르다/비슷하다/일치한다].
'넣다, 던지다, 떠나다, 도착하다' 등 출발점이나 방향점이 있는 동사	~에(사물), ~에게(사람) ~에서(출발점), ~에,~(으)로(방향점)	지민이가 편지를 책상에 넣다. 지민이가 공을 포수에게 던지다. 나는 책상을 구석으로 치웠다. 나는 제주도에서 떠났다. 영희가 무리에서 이탈했다. 달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머물다, 놓다, 두다' 등 소재지와 관련된 동사	~에	영민이는 책을 책상에 [놓았다/두었다] 그녀는 지금 제주도에 머문다.
'주다, 받다' 등 주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 ★	~에(사물), ~에게(사람)	나는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받았다] 나는 꽃에 물을 주었다. 나는 영희에게 돈을 빌렸다
'삼다, 여기다'류 ★	~(으)로	나는 그를 사위로 [삼았다/여겼다] 그 사람을 범죄자로 간주하다. 그는 내 작품을 최고로 쳤다.
'선출하다, 만들다'	~(으)로	학생들이 철수를 반장으로 [선출했다/만들었다]

유형	필수적 부사어	예시
'생기다, 굶다'	~게	그 인형은 귀엽게 생겼다. 동생이 나에게 못되게 굶다.
'알맞다, 적합하다' 등 기준과 관련된 형용사	~에, ~으로	오늘은 나들이하기에 알맞은 날씨다. 베는 여름철 옷감으로 알맞다. 이 지역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그곳은 포대 주둔지로 적합하다.

- 배어'는 각각 '겠다'와
- 쭈었다'는 각각 '파'와
- 이-'가 붙은 '(발에)
- 날 수 있다.
- 별이) 쏘-'에 '-이-'가
- 붙은 '(별에) 쏘이-'에 '-어'가 붙으면 '쬐'로 적을 수 있다.
- ⑤ ㉠을 적용한 후 ㉡을 적용할 때, 어간 '(오줌을) 누-'에 '-이-'가
- 붙은 '(오줌을) 누이-'에 '-어'가 붙으면 '뉘어'로 적을 수 있다.

진행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제 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합니다. 또 이 정보는 ㉣ 아동이 18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되고,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그래도 등록률을 높이려면 현재보다 강화된 개인 정보 보호 방안이 있어야겠네요. △△ 신문을 더 살펴볼까요? 지문 등을 사전등록하면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전문가: 지문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실종자를 찾기까지 평균 56시간, 등록하면 평균 50여 분 정도 걸립니다.

진행자: 시간이 많이 단축되네요. 이제 다른 기사들도 살펴볼까요? □□ 신문인데요, 간단히 보면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 신문에는 지문 등 사전등록 스마트폰 앱이 소개되어 있네요.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2) ㅏ, ㅑ, ㅓ, ㅕ, ㅗ + -어- → ㅐ, ㅑ, ㅓ, ㅕ, ㅗ

규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다. 시각적으로도 'ㅏ' 오른쪽에 'ㅣ'를 그으면 'ㅐ'가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모음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또한 뒤에 '-어'가 추가적으로 결합하면 다양한 형태가 표준어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쓰이어'를 보면 '쓰이어' 중 '쓰이'만 줄어들어 '씩어'로 쓸 수도 있고, '이어'만 줄어들어 '쓰여'로 쓸 수도 있다. 다만 '씩어'는 불가능하다.

'씩어'를 분석하면 '쓰이어'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쓰이어'는 '쓰이어/쓰여/씩어'의 3가지 표기로 가능하다.

39번 문제는 정보량이 많아 은근히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요, 나랏말싸م 2022버전 252-254p.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252-254페이지는 전부 보실 수 있게 다음 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특히 노란색 박스를 보면 정답 5번이 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씩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뉘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39. <보기>는 준말에 관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이를 적용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34항 [붙임 1] 'ㅐ, ㅑ'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제35항 모음 'ㅓ, ㅕ'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ㅏ/ㅑ, ㅓ/ㅕ'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제35항 [붙임 2] 'ㅓ' 뒤에 '-어, -었-'이 어울려 'ㅐ, ㅑ'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ㅑ'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제37항 'ㅏ, ㅑ, ㅓ, ㅕ, ㅗ'로 끝난 어간에 '-어'가 와서 각각 'ㅐ, ㅑ, ㅓ, ㅕ, ㅗ'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① ㉠을 적용하면 '(날이) 개었다'와 '(나무를) 베어'는 각각 '갬다'와 '베'로 적을 수 있다.
- ② ㉡을 적용하면 '(다리를) 꼬아'와 '(죽을) 쑤었다'는 각각 '파'와 '쑤다'로 적을 수 있다.
- ③ ㉢을 적용할 때, 어간 '(발로) 차-'에 '-어'가 붙은 '(발에) 차이-'에 '-었다'가 붙으면 '채었다'로 적을 수 있다.
- ④ ㉣을 적용한 후 ㉡을 적용할 때, 어간 '(별이) 쏘-'에 '-어'가 붙은 '(별에) 쏘어-'에 '-어'가 붙으면 '쑤'로 적을 수 있다.
- ⑤ ㉣을 적용한 후 ㉢을 적용할 때, 어간 '(오줌을) 누-'에 '-어'가 붙은 '(오줌을) 누어-'에 '-어'가 붙으면 '뉘어'로 적을 수 있다.

(1) ㅓ+어 → ㅑ

'ㅓ'와 'ㅑ'를 구별하는 방법은 '하'와 '해'를 넣어보면 된다. 예를 들어 보자.

		판단 결과
그러면 안 [되/돼]	안 하 / 안 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돼]요	안 하요 /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작품이 완성[되/돼]다	완성하다 / 완성해다	작품이 완성되다
작품이 완성[되/됐]다	완성했다 / 완성했다	작품이 완성됐다
내일 [되/돼]요	내일 하요 / 내일 해요	내일 돼요
내일 [되/돼]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 내일 해겠습니다	내일 뵈겠습니다

하겠네요.

전문가: ㉠ 사전등록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보는 ㉡ 아동이 18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되고,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그래도 등록률을 높이려면 현재보다 강화된 개인 정보 보호 방안이 있어야겠네요. △△ 신문을 더 살펴볼까요? 지문 등을 사전등록하면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전문가: 지문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실종자를 찾기까지 평균 56시간, 등록하면 평균 50여 분 정도 걸립니다.

진행자: 시간이 많이 단축되네요. 이제 다른 기사들도 살펴볼까요? □□ 신문인데요, 간단히 보면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 신문에는 지문 등 사전등록 스마트폰 앱이 소개되어 있네요.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적용 문제-80

2014년 3월 고3

〈보기〉는 국어 수업 게시판의 문답 내용이다. ㉠과 ㉡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동생이랑 밥을 먹는데 동생이 갑자기 왜 ‘젓가락’은 ‘ㅅ’ 받침을 쓰는 데, ‘숟가락’은 ‘ㄷ’ 받침을 쓰느냐고 묻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답 ‘젓가락’과 ‘숟가락’은 비슷한 합성어처럼 보이지만, 그 구성을 살펴보면 다른 점이 있어. 먼저, ‘젓가락’은 ‘저’와 ‘가락’이 결합된 말로, 합성어를 이룰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인 것이지. ‘ ㉠ ’ 같은 단어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 말이야. 그런데 ‘숟가락’은 ‘수’와 ‘가락’이 결합된 것이 아니라, ‘술’과 ‘가락’이 결합된 합성어야.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처럼 끝소리가 ‘ㄹ’인 말이 딴 말과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 ㉡ ’ 같은 단어가 여기에 해당하지.

- | | | |
|---|------|------|
| | ㉠ | ㉡ |
| ① | 첫째 | 삼짇날 |
| ② | 맷돌 | 미단이 |
| ③ | 혼삿길 | 선달 |
| ④ | 나뭇잎 | 선부르다 |
| ⑤ | 셋노랑다 | 만며느리 |

1.6 본말과 준말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줄어들 때 준말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1) ㄴ+어 → ㄷ

‘ㄴ’과 ‘ㄷ’을 구별하는 방법은 ‘하’와 ‘해’를 넣어보면 된다. 예를 들어 보자.

		판단 결과
그러면 안 [되/돼]	안 하 / 안 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돼]요	안 하요 /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작품이 완성[되/돼]다	완성하다 / 완성해다	작품이 완성되다
작품이 완성[됐/뒀]다	완성했다 / 완성했다	작품이 완성됐다
내일 [되/뵈]요	내일 하요 / 내일 해요	내일 뵈요
내일 [되/뵈]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 내일 해겠습니다	내일 뵈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2] ‘ㄷ’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냐’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괴어	괘		괴었다	괘다
되어	돼		되었다	뒤다
뵤어	뵘		뵤었다	뵘다
쇠어	쇄		쇠었다	쇄다
썩어	썩		썩었다	썩다

적용 문제-81

2016학년도(2015년) 6월 평가원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 생 : ‘되어요, 돼요, 되요’ 중에서 어느 게 맞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 “어간 모음 ‘ㄷ’ 뒤에 ‘-어’가 붙어서 ‘내’로 줄어지는 것은 ‘내’로 적는다.”라는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되어요’는 어간 ‘되-’에 ‘-어요’가 결합된 것이므로 ‘돼요’로 줄어들 수 있어. 그러니까 ‘되어요, 돼요’는 맞는 말이지만 ‘되요’는 틀린 말이지. ‘(바람을) 쐬다, (턱을) 괴다, (나사를) 죄다, (어른을) 뵤다, (명절을) 쇠다’ 등도 이 규정에 따라 적으면 돼.
 학 생 : 아, 그러면 ㉠ _____

- ① ‘썩어라’는 ‘썩-’와 ‘-어라’가 결합된 것이므로 ‘썩라’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 ② ‘괴-’와 ‘-느냐’가 결합될 때는 ‘어’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괘느냐’는 틀린 말이겠네요.
- ③ ‘뵤도’는 ‘죄-’와 ‘-어도’가 결합된 말이 줄어든 것이겠네요.
- ④ ‘뵤-’가 ‘-어서’와 결합되면 ‘뵤서’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 ⑤ ‘쇠-’와 ‘-더라도’가 결합될 때는 ‘쇄더라도’로 적으면 틀린 것이겠네요.

(2) ㅌ, ㅋ, ㆁ, ㅌ, ㆁ + -어- → ㄱ, ㅋ, ㄷ, ㄱ, ㆁ

규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다. 시각적으로도 ‘ㅌ’ 오른쪽에 ‘ㅣ’를 그으면 ‘ㄱ’가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모음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또한 뒤에 ‘-어’가 추가적으로 결합하면 다양한 형태가 표준어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쓰이어’를 보면 ‘쓰이어’ 중 ‘쓰이’만 줄어들어 ‘썩어’로 쓸 수도 있고, ‘이어’만 줄어들어 ‘쓰여’로 쓸 수도 있다. 다만 ‘썩여’는 불가능하다. ‘썩여’를 분석하면 ‘쓰이어’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쓰이어’는 ‘쓰이어/쓰여/썩어’의 3가지 표기로 가능하다.

제37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싸이다	쌌다		누이다	늬다
펴이다	폈다		뜨이다	띄다
보이다	봬다		쓰이다	썩다

제38항 ‘ㅏ, ㅓ, ㅕ, ㅗ, ㅛ, ㅜ, ㅠ, ㅡ’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싸이어	쌌어 싸여		뜨이어	띄어
보이어	봬어 보여		쓰이어	썩어 쓰여
쏘이어	썩어 쏘여		트이어	띄어 트여
누이어	늬어 누여			

적용 문제-82

2013학년도(2012년) 9월 평가원

〈보기〉는 준말과 관련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와 그 예시이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보 기〉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본형	파이다	ㅑ
용례	깊게 파인 구덩이	깊게 ㉠ 구덩이

○ ‘ㅑ, ㅓ’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용례	구덩이가 깊게 ㉡	구덩이가 깊게 뻤다

- | | | | |
|---|-----|----|-----|
| | ㉠ | ㉡ | ㉢ |
| ① | 패다 | 팬 | 패었다 |
| ② | 패다 | 팬 | 패였다 |
| ③ | 패다 | 패인 | 패였다 |
| ④ | 패이다 | 팬 | 패었다 |
| ⑤ | 패이다 | 패인 | 패였다 |